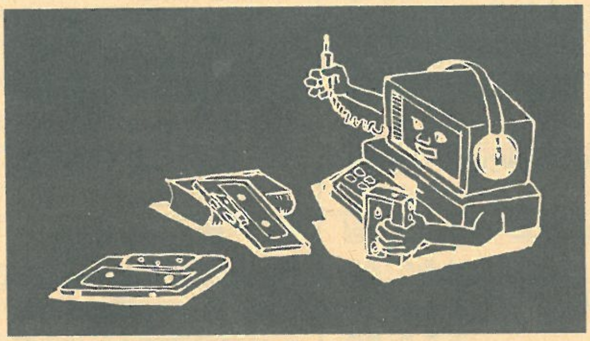
컴퓨터 낙수

"보호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根幹)은 약속에 있다.

규정을 정하고 협상을 하며, 이해타산 속에서 적절한 임기응변은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의 굴레를 이루는 하나의 축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여기서,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과 개성이 동일하지 않을진대, 개인의 특성이 묵살되는 사회는 그 존립자체 마저도 위협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각자의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은 서로의영역을 보호해 주고, 또 나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고자 하는 약속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시기가 문제였던 외국 간행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법은 어쩌면 논란의 가치도 없는 당연한 약속을 가지고 빈 통속의 고무공 튀듯 요란한 반응을 보이는 추태로 거부감을 갖게 하고, 욕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집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현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된다. 신의 존재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물질적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확인이 용이하고, 가치가 쉽게 계산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우리의 속성이 되었고, 타성에 젖어 버렸다. 그 원인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희박하다.

한 줄의 시, 한 편의 소설을 읽기는 너무도 쉽다. 이 정도쯤이야 나도… 하는 의식이 자칫 잘못된 인식의 시도가 되는 것이다. 보편타당한 지식만 지녔다면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지 않아도 가능한 특권(?)이라는 얕은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 한 정신적 발전 단계는 여전히 소아병적 비굴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이다.

선진국은 여러면에서 선진국이다. 모방이 창조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며, 주춧돌도 없이 기둥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 방법론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 * *

'57년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 바야흐로 30년이 되었다. 내일이 멀다하고 달음박질로 숨가빠하는 산업발전에서 정보 통신분야는 단연 선두주자이며, 1급 태풍과 같다.

그동안의 양이나 질적 팽창은 30여년의 세월속에서 너무 퇴색된 법안으로, 아니 우리의 몸집이 거대해져 맞지않는 옷이 된 자부심으로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새로이 개정되는 법안에 외국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다 해도 우린 두려울 것이 없다. 어쩌면 법안 개정은 당연한, 마땅히 올 것이 온 흐름이며, 국제적으로 출판 해적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

도둑질에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떠든다면 누워 침뱉기 밖에 없다. 남의 권리를 인정할 때, 내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있음이다.

항간에는 한미 무역마찰에 따르는 예봉을 막는 방패 역할이었다며, 섭섭해 하는 마음도 있는 듯하다. 어떠한 조건이 되었든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우리도 결국에는 선진국이 된다.

우리가 뒷통수를 맞는 꼴은 당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글 : 이 해원 기자